



인간 노무현 '노공이산(盧公移山)' 그려낸 이건·박운음 작가 25일 광주 추모행사때 출판사인회

“5월 광주서 만나는 인간 노무현”

오월이 되면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 4년 전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그의 4주기(오는 23일)를 맞아 '인간 노무현'을 그려낸 웹툰 '노공이산(盧公移山)' 글 이건, 그림 박운음이 완결을 맺는다.

지난 2012년 7월2일 노공이산 1화 '박석을 던고'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연재된 이후 11개월만이다. 지난 6일과 지난해 12월에는 웹툰을 엮은 '한삼한삼 노공이산(도모복스)' 1~4권이 책으로 출간됐고, 다음달에는 완결본이 나온다. 오는 25일 광주에서는 열리는 서거 4주기 행사에서 출판 기념 사인회를 여는 두 작가는 인터뷰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공이산은 노무현재단의 기획으로 시작했다. 박운음 작가가 그린 노 전 대통령과 손녀의 모습이 담긴 '노짱일러스트'가 계기였다. 기획은 재단이 했지만 작품 방향은 이건, 박운음 작가의 몫이었다. 두 작가는 웹툰을 통해서 왜곡된 진실을 찾고 싶었다고 한다. 웹툰 제목은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봉하마을에 내려와 직접 지은 필명 '노공이산'으로 정했다.

“정치인 노무현보다는 인간 노무현을 찾는데 집중했어요. 정적 자료는 많았지만 국민들이 공감하고 피부에 닿을만한 소재는 찾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도 그것을 원했으리라 생각해요.”(이건) 인간 노무현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

니 너무 드라마틱한 일화들이 많아서 고민이었다. 20~30년 전 신문자료를 뒤지고, 논문, 전화 취재를 시작했다. 사실 그대로를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미 공개된 것들은 대부분 피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이 오롯이 드러난 그런 이야기들을 찾았다.

이건 작가가 매주 두 가지 에피소드를 발굴하면 박운음 작가가 그를 토대로 매화 25페이지 분량을 그렸다. 박운음 작가는 '살인적인 스케줄'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작가들에게는 힘이 됐다.

“3회까지 연재하고 나니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재단에서는 '대박'이라고 말했죠. 평균 1만5000여 명이 웹툰을 봤으니까요. 무엇보다 대통령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린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린 웹툰 노공이산 연재를 앞두고 있는 이건(사진 왼쪽), 박운음 작가가 오는 25일 광주에서 팬 사인회를 연다. <도모복스 제공>

“정치인 아닌 진실한 삶 그려... 웹툰 통해 왜곡된 진실 찾고 싶어”

사실이 신선했던 모양입니다.”(박운음) 에피소드는 대부분 인간 노무현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현재의 정치 상황과 비교할 소재도 많이 채택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잘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그 대로를 그렸고, 평가는 독자들이 했다. 그래서 작가들은 한 줄도 소홀할 수 없었다.

연재가 거듭 되면서 매주 '노공이산'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늘었다. 웹툰을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독자도 생겼다. 평생 투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독자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투표장으로 들어갔다. 신문을 돌리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한 독자가 유기농 사과를 보내오기도 했다.

최근까지 출간된 책 4권도 독자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1차 '도서편당'을 통해 목표가 넘는 1082만 원이 모였고, 5월 말까지 진행중인 2차 편당에서도 지난 18일까지 모두 970여 만 원이 모였다. 목표는 1500만 원이다. 두 작가가 만든 책이 아니라 국민이 펴낸 책이 된 셈이다.

“웹툰에 수많은 댓글이 많이 달렸습다.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ㅠㅠ(눈물)'였어요. 웹툰을 보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4주기를 맞아 '자신을 버려 달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처럼 그리워만 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지요. 오월은 광주입니다. 오월은 노무현입니다.”(이건)

관련 노공이산 작가 사인회는 오는 25일 3시 금남로에서 진행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H-프리미엄 콘서트’

예향을 채운 음악에너지



19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전국 순회공연-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H-프리미엄 콘서트'가 끝난 후 정명훈과 서울시향교향악단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혜진기자 choi@kwangju.co.kr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향 교향악단이 광주·전남 지역 팬들에게 고전주의 교향곡의 완성자인 베토벤의 선율을 들려줬다. '전국 순회공연-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H-프리미엄 콘서트'가 지

난 18일 여수 예음마루 공연에 이어 19일 광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피날레를 장식했다.

서울시향은 베토벤의 유일한 바이올린협주곡인 '바이올린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1'을 무대에 올려 관객들의 아낌없는 갈채를 받았다. 이 곡의 협연자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은 앙골 무대에서 바흐의 무반주 파르티타 1번을 연주해 관객들에게 화답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 장식했다. 서울시향은 오케스트라의 기량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이 곡으로 베토벤 교향곡의 정수를 선보였다. 서울시향은 앙골 무대에서 프랑스의 '헝가리안 무곡' 제1번을 들려줬다.

6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서울시향교향악단은 2006년 정명훈이 예술감독으로 부임하면서 폭넓은 레퍼토리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으로 듣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빛고를 천원의 행복' 오늘 서구문화센터

‘음악으로 만나는 창작 동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천원으로 즐길 수 있는 '빛고를 천원의 행복' 5월 행사가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서구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창작음악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공연한다. 동화를 음악으로 만든 이번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음색의 악기가 연주된다.

아시아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가 출연하며 한국에서 피아노와 플루트를 전공한 후 러시아로 건너가 국립그레신 음대를 수석 졸업한 라현수씨가 지휘봉을 잡는다. 여기에 연극배우의 내레이션이 어우러져 스토리가 있는 재밌는 클래식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환인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프로젝트의 '무지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머나', '동요 매들리' 등을 연주한다.

문의 홈페이지(www.gjasia.org),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대 의상디자인학과 23일 졸업작품패션쇼

숨겨진 오감을 드러낸다

미래의 패션리더들의 아이디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대 의상디자인학과 졸업작품패션쇼가 오는 23일 광주대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이번 졸업패션쇼는 '숨겨진 오감이 반응하는 촉(Touch)'을 주제로 지난 4년동안 패션에 대한 열정으로 공부해 온 25명의 학생들의 결실을 모아 진행된다. 손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촉감에 반응하는 감성을 담아낸 95벌의 창작의상과 한복 50여벌을 8개의 테마로 선보인다.

광주대 의상디자인학과 안명숙 교수는 “작품 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과, 때로는 너무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 가슴 벅찼던 학생들의 기억이 표현돼 있다”며 “졸업작품전이 열리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북돋아 주셨던 학과 교수님들과 지인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행사는 오후 4시와 7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보람기자 boram@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세계최고 단롭침대 라텍스 판매

중저가 엔틱소파 7종류 신상품

중저가 확장형식탁, TV장 신상품

자하 1,2층 할인매장 1,2 이태리 가구 3층 단롭침대 4,5층 모던,훈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1899-0240